

다름다운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특별한 날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제 42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을 위해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나눠볼 수 있도록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가 장애학생과 짝이 되기 싫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답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나 생김새나 목소리, 좋아하고 잘하는 것, 싫어하고 못하는 것이 다르듯이 장애친구에게 나와 다르고 낯설게 보이는 점들이 보여도 서로 존중하며 지내야 하는 친구임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 (따돌림,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말)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2020년 11월 대형 마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견 훈련을 받던 개와 주인(퍼피워커)가 출입을 거부 당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밴 직원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내견 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어도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포용적인 태도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은 그 마트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진 출처: <http://news.samsungcnt.com>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정화원 의원은 국회에서 안내견 입장이 허용되지 않아 보좌관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안내견의 국회 출입이 허용되지 않다가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등장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내견으로 훈련받는 개들이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을 이해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통해 훌륭한 안내견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장애인을 만나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애인을 흘깃흘깃 보면서 속삭이거나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장난삼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가슴 아픈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친절함 한 마디의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이에 용기를 얻고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지, 김예지 의원, 김다주씨

직장에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인권을 중시하는 기업 경영인이 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고쳐가거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



사진 출처: <http://news.samsungcnt.com>

는데 유익한 웨어러블 기기를 발명하고 개발하는 등의 꿈을 키워가는 어른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야 하고, 때로는 아픔과 실수를 경험하며 배워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장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친구들과 지내다보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높고,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묻어나는 어른으로 자라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정답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학교 생활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전주만성초 학생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심 많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4월 15일
전주만성초등학교장